

# 35년 된 광주 하남산단... 첨단산업 단지로 탈바꿈

2026년까지 438억 재생사업 실시  
청년 신규채용·고용 창출 효과 기대



하남산단 전경. /광주시

준공된 지 35년이 지난 광주 하남산단이 첨단산업단지로 새롭게 태어난다.

존에 금속산업 위주의 공해유발 업종 대신 정보통신기술이나 지식산업 위주의 첨단산업으로 업종을 재배치하고 노후한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한다.

광주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남산단 재생시행계획(안)을 확정하고 오는 17일 하남산단관리공단 회의실, 오는 26일 전남 장성군 남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각각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광주 광산구 장덕·오막·안청·도천동 일원에 1983년 준공된 하남산단은 현재 594만4000㎡의 부지에 산업시설 449만7000㎡, 지원시설 25만1000㎡, 공공시설 82만

2000㎡, 녹지구역 37만3000㎡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999개 업체가 입주해 가동률 99.7%를 보이며, 연간 생산액이 12조 2526억원으로 광주 산단 전체의 53.1%를 차지한다.

수출액도 41억2100만달러(광주시의 54.3%), 고용인구 2만6430명에 이르고 있다.

입주 업종은 조립금속 업종이 39.3%, 화학 업종이 13.2%, 식품 관련 업종이 4.

6% 등의 순이다.

하지만 준공 35년이 지나면서 생산설비와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2015년 7월 정부 공모에서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자 올해 1월부터 하남산단의 재생 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재생시행계획(안)을 수립했다.

광주시는 국비 180억원, 시비 249억원, 민자 9억원 등 모두 438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까지 3단계로 나눠 하남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1단계(2016~2019년)에 300억원, 2단계(2020~2023년)에 100억원, 3단계(2024~2026년)에 38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이를 통해 노후한 기반시설을 개선·확충하고 편리한 근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구조 고도화 사업을 통해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정보통신기술(ICT)·지식산업 등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하도록 추진한다.

주로 의료정밀·과학기술, 시계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무공해 첨단산업을 유지한다.

금속산업이나 사양산업, 공해유발 업종 등의 부지를 용도변경을 통해 첨단부품소재 등으로 재배치하고 아파트형 공장을 도입하는 등 집적화를 유도할 방침

이다.

도로 구조도 대형 차량이 교행할 수 있도록 너비 17.3m로 개선하고 주차장 2개 신설, 공원과 산책로 신설 등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광주시는 업종 재배치와 지식산업센터 설치 등으로 미래성장 유망산업을 유치하면 청년 근로자 신규 채용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업종 재배치 등을 마무리하면 연간 생산액이 약 946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재생사업을 통해 하남산단은 산업·문화·연구 기능이 복합된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복합산업단지로 재 정비하면 입주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완도, '전복산업' 활성화 위한 워크숍

완도군은 전복 생산량 증가와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한계 등으로 인해 전복 산업이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종자·생산·유통·가공·수출 관계자 및 유관 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분야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완도군의회,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완도지원, 남해수산연구소, 전라남도 해양수산기술원 수산종자연구소, 한국수산개발원 양식관측팀 및 유관 기관과 한국전복산업연합회 등 전복 산업 분야별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완도군은 전복 생산량 증가와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한계 등으로 인해 전복 산업이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종자·생산·유통·가공·수출 관계자 및 유관 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분야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완도군의회,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완도지원, 남해수산연구소, 전라남도 해양수산기술원 수산종자연구소, 한국수산개발원 양식관측팀 및 유관 기관과 한국전복산업연합회 등 전복 산업 분야별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 보해양조, 숙취해소음료 '간개무량' 출시

간 기능 도움되는 7가지 성분 담아



보해양조가 숙취해소음료 '간개무량'을 새롭게 출시한다. 연말 송년회 자리가 많은 이들에게 소주회사 보해가 만든 숙취해소음료의 등장은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해양조가 오는 13일 출시하는 간개무량은 술을 제일 잘 아는 소주회사가 만든 숙취해소음료다. 지난 1950년 설립된 이후 68년 동안 주류전문기업으로 발전해온 보해는 술을 만드는 것은 물론 숙취해소에 관한 노하우도 풍부하다.

간개무량은 보해가 가진 숙취해소 노하우를 모두 담은 음료로서 알코올 분해 효과가 뛰어난 밀크씨슬과 울금 등 간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7가지 성분을 담았다. 밀크씨슬과 울금 이외에 헛개나무 열매, 비타민 B6, 효모엑기스, 오리나무, 미배아대두추출물 등 간에 좋은 성분이 최적의 조합으로 들어갔다. /광주=봉채영 기자

## '님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 사업 박차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상징곡  
국비 9억원 사업비로 확보 성공

5·18 광주민주화운동 상징곡이자 광주 정신이 깃든 '님을 위한 행진곡'이 세계 민주주의의 상징곡으로 거듭 난다.

광주광역시 '님을 위한 행진곡'에 담긴 5월 민주정신을 문화예술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세계에 알리기 위해 추진해온 '님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 사업비가 내년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비 9억원이 반영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2년까지 총사업비 83억원(국·시비 각 50%)을 5년간 투입해님을 위한 행진곡을 기반으로 전 세계인이 공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작·보급, 글로벌 브랜드화하는 내용이다.

광주시는 국비 9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님을 위한 행진곡 창작 뮤지컬'을 제작하고 2020년 5·18민주화운동 제40주년을 기념해 국내외 순회공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홍콩, 대만, 중국,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국가별로 제각각 불리고 있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표준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표준가사를 마련하고 행진곡의 가사와 배경, 과정 등을 세계어로 번역해 배포하는 작업도 진



지난 7월 7일 체코 프라하 특별음악회의 모습.

행한다.

이 밖에도 아시아, 유럽 등 민중가요분야 활동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아카데미, 워크숍 등 국제화추진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은 '님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를 위해 2018년부터 관현악곡 제작, 국내외 연주회 개최, 창작 관련악곡 작품공모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더불어 '님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 사업비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지역 국회의원 정책감담회, 여야당과의 정책간담회, 정부 부처 방문 설명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으로 '님을 위한 행진곡'에 담긴 5월 민주정신을 문화예술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마련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콘텐츠들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병재 시 문화도시정책관은 "2022년까지 '님을 위한 행진곡'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들이 세계적인 브랜드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제작·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광주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민주·인권·평화도시라는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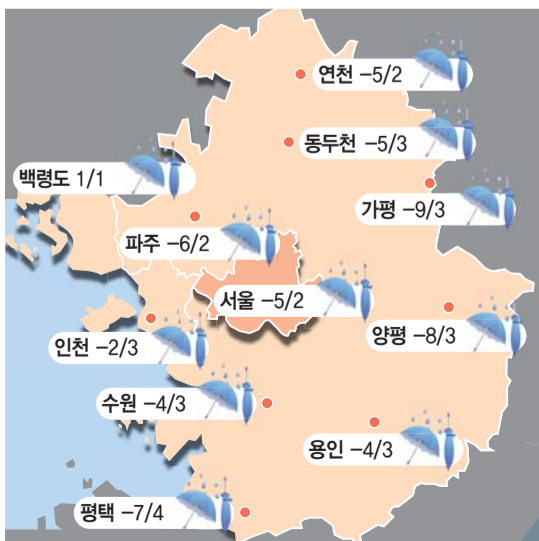
###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38 | 해질 / 17:14

12월 13일 (목)  
음력 : 11월 7일

수도권 날씨  
-5 ~ -2°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전남도, 창업자에 전국 첫 1대1 전문가 매칭

전남 창업지원 종합 플랫폼

준비부터 창업 후 케어까지 맞춤형

'전남 창업지원 종합 플랫폼'이 전국 최초로 창업자를 대상으로 준비단계부터 창업 후까지 1대1 전문가 매칭 지원에 나선다.

전라남도는 12일 무안남악북향주민센터에서 예비창업자, 창업지원기관,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창업지원 종합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전라남도는 설명회에서 플랫폼 사업의

목적, 시스템, 운영 방향 등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4차 산업혁명의 스타트업 불특정 다수 시스템 구축이라는 주제강연도 이어졌다.

창업 지원 종합 플랫폼에서는 전남지역 27개 창업지원기관을 하나로 연결해 다양한 창업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상담을 통해 수요자에 맞는 창업 코디네이터를 1대1로 매칭해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한다.

누리집을 통해 다양한 창업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의 플랫폼 운영은 다른 지역에서 시도되고 있으나, 1대1 전문가 매

칭을 통해 준비 단계부터 창업 후까지 계속 컨설팅을 하는 것은 전남이 최초다.

전라남도는 12월 시범 운영을 통해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 창업을 바라는 도민 누구나 쉽게 이용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2019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김신남 전라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플랫폼 운영의 성공 여부는 창업 희망자의 길잡이가 될 전문가 멘토단의 활약에 달려 있다"며 "멘토단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살려 예비창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컨설팅이 이뤄지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창업지원 종합 플랫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전남=봉채영 기자